

<서평>

## *Jesus in Q*,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다!

Ky-Chun So,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7

송 일\*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서 학자들은 전승의 발전단계와 관련하여 구전전승이 지난 후에 문서전승의 시대가 온 것으로 간주하지만, 저자인 소기천 박사는 본 연구에서 예수말씀 기억이라는 전통 속에서 구전전승과 문서전승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주후 50-70년경으로 추정되는 Q의 편집 연대에 이의를 제기하며, 예수의 부활 승천 시기에 매우 근접한 주후 30년대 초를 Q의 생성 시기로 제시한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Q에 실린 예수말씀이 역사적 예수의 실제 육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확인시켜 준다. 결과적으로 Q 본문에 대한 역사적 신뢰성이 탄탄하게 한 층 더 격상된다.

한편 대다수의 Q 학자들은 복원된 Q 본문이 예수의 육성에 대한 순수 기록이 아닌 초기교회의 신앙 고백이 투영된 편집물로 보는 반면, 저자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말씀을 바울 이전에 이미 존재하여 그에게 영향을 미친 예수말씀 전승, 곧 역사적 예수의 육성으로 인정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인 Q 본문 역시 역사적 예수가 친히

---

\* Bethesda University in CA, USA 교수, 신약학

하신 말씀의 사실적 기록이라고 주장한다.

Q의 서사적 특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Q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예수말씀들을 맥락 없이 기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편집물로 보는 반면, 저자는 Q 14:5과 전후 문맥인 Q 13장 및 Q 14장 사이의 연속성에 주목하며, 맥락적 연결 차원에서의 Q14:5에 대한 이해를 주장한다. 저자가 주창하는 특정 본문의 맥락화는 Q의 서사성 결여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관례를 성공적으로 설파한다. Q 14:5의 맥락적 이해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한 후 저자는 예수의 안식일 논쟁이 Q 전체를 통틀어 오직 이 본문에만 단 한차례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 유대 율법과 이방인 선교라는 팽팽한 긴장 관계의 상반된 두 주제가 절묘하고 일관된 신학적 맥락 가운데 대립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난공불락의 벽처럼 서있던 경계가 예수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 허물어 지고 있다는 것을 Q의 맥락적, 서사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입증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저자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공헌 중 하나는 주장의 학문적 객관성 담보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관련 고전 문헌들(예를 들어, 구약성서, 외경, 위경, 신구약 중간기 문헌, 교부들의 증언, 나그 함마디 문서, 랍비 문헌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들과 예수말씀 사이의 직, 간접적 관계를 자신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저자의 이러한 노력은 예수말씀에 기초한 초기 정통교회의 신앙적 주요 흐름에 대한 고증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저자는 유대성 및 상호본문성, 이 두 방법론을 사용하여 예수말씀을 면밀히 다루고 있는데, 이는 향후 신약학계가 진정성있게 주목해야 할 신약성서 관련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이정표가 된다.

저자의 연구는 성서 본문 주석이라는 기술적 차원을 안전하게 담보하면서, 성서 본문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 내용에도 심혈을 기울이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저자의 신학적 관심은 기독교 신앙을 표명하지 않는 기존의 학문적 성서 본문 연구 관행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기치 아래 성서 본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학문과 신앙의 분리적 시각이 아닌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저자의 이러한 노력은 성서 비평학을 사용한 하나의 방법론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적 방법론을 그 중심에 놓는 성서 비평학을 새롭게 제한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저자의 가치 있는 기여는 도마복음과 관련해서도 부각된다. 저자는 영지주의 교단의 결과물인 나그함마디 문서 가운데 유일하게 도마복음서만이 비영지주의적 성향의 문서라고 평가함으로써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도마복음의 영지주의 성향에 시정을 요구한다. 이 시정에 대한 근거로 저자는 도마복음이 그 기원을 구약성서에 두고 있음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동부 시리아의 에데사를 기점으로 한 동방교회가 정통 그리스도교로 확립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한편 저자는 영지주의를 불트만 (Rudolf Bultmann)의 관점과 연속 선상에서 종교적 사상 내지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로빈슨 (James M. Robinson)이 제안한 도마복음에 관한 새로운 탐구 방식 곧 비영지주의적 관점으로 아담의 묵시록을 연구하였다. 이 점에서 프랑스 콥트 학자인 장 도레스 (J. Doresse)를 위시한 나그함마디 문서에 관한 옛 탐구는 나그함마디 문서를 오직 영지주의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 저자가 새롭게 제안하는 나그함마디 문서의 탐구 방식은 비영지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지향한다.

또 저자는 아담의 묵시록의 정황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에서 독립된 유대적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아담의 묵시록이 이른바 발렌티누스 영지주의 문헌에서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영지주의 문헌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여기서 저자는 아담의 묵시록에 나타난 전통적인 유대교의 영향을 논증하기 위해 정경을 인용하고, 해석학 및 역사적 재구성의 렌즈를 통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구약성서의 시편과 외경인 솔로몬의 지혜서와 달리 저자는 위경인 솔로몬의 시편을 누가복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서로 간주한다. 그리고 저자는 누가

복음에 보존되어 있는 예수말씀이 마태복음과의 공동자료인 Q이기 때문에 외경인 솔로몬의 시편이 정경 복음서와 신학적으로 중요한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Q의 신학과 연관되는 많은 내용들을 제안한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은 일반적으로 정경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약학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외경과 위경에 까지 관심의 범위를 넓혀 예수말씀이 지닌 신학적 배경을 폭넓게 연구하고 이로 인한 풍성한 연구적 결실의 수확을 강하게 제안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기천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해 Q 연구 관련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명인 제임스 로빈슨 박사의 직계 제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특히 예수의 안식일 논쟁이라는 단초를 발견하여 Q의 서사적 특징을 확증하고, 나아가 예수의 안식일 논쟁이 유대교 전통과 이방인 전도라는 얼핏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두 주제를 무리 없이 한 연속선상에 위치시키는 가교로서 기능한다는 통찰은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정 Q 본문을 그것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해야 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서적으로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회자 및 사용될 것이다. Q 본문의 맥락적 고려를 통한 바른 신학적 이해의 물고가 활짝 열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후발 연구 주자들에게 의한 Q의 다양한 본문들의 맥락적 이해에 관한 다양한 연구이다. 나아가 이러한 Q 본문의 정황상 이해를 세계의 각 교회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정황과 비교 및 대조하여 예수말씀을 예수의 몸 된 교회에 적확하게 적용 및 실천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초록>

## *Jesus in Q*,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다!

송일

(베데스다대학교 교수)

소기천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해 Q 연구 관련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명인 제임스 로빈슨 박사의 직계 제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특히 예수의 안식일 논쟁이라는 단초를 발견하여 Q의 서사적 특징을 확증하고 나아가 예수의 안식일 논쟁이 유대교 전통과 이방인 전도라는 얼핏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두 주제를 무리 없이 한 연속선상에 위치시키는 사고로서 기능한다는 통찰은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정 Q 본문을 그것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해야 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서적으로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회자 및 사용될 것이다. Q 본문의 맥락적 고려를 통한 바른 신학적 이해의 물꼬가 활짝 열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후발 연구 주지들에 의한 Q의 다양한 본문들의 맥락적 이해에 관한 다양한 연구이다. 나아가 이러한 Q 본문의 정황상 이해를 세계의 각 교회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정황과 비교 및 대조하여 예수말씀을 예수의 몸 된 교회에 정확하게 적용 및 실천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